



이 한방에...

18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과 이란의 경기에서 레자 구차네자드가 찬 공이 한국 골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답답한 '땡 축구' 본선 걱정된다



전술 부재에 수비불안, 골 결정력 부족

최종 예선전 '망신살' A조 2위로 진출

■ A조 최종순위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점	실점	골득실	승점
1	이란	5	1	2	8	2	+6	16
2	한국	4	2	2	13	7	+6	14
3	우즈벡	4	2	2	11	6	+5	14
4	카타르	2	1	5	5	13	-8	7
5	레바논	1	2	5	3	12	-9	5

한국 축구가 천신만고 끝에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최강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8차전에서 후반 15분 이란의 레자 구차네자드(스탕다르 리에주)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다.

5승1무2패로 최종예선을 마친 이란이 A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4승2무2패(승점 14·골 득실+6)를 기록, 이날 카타르(승점 7)를 5-1로 꺾은 우즈베키스탄(승점 14·골득실 +5)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본선 진출의 기쁨을 맛봤다.

화끈한 승리로 최종예선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랐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크게 남은 경기였다.

크게 패하지만 않으면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이 되는 여유로운 경기였지만 태극전사들은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며 그라운드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한국은 이란과의 역대 전적에서 9승7무11패로 크게 밀렸다.

결정력 부족의 비난을 받은 최강희 감독은 선발로 최전방에 스트라이커 자원 4명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고공 폭격기' 김신욱(울산)과 '라이언킹' 이동국(최전방에서 투톱을 이루고 손흥민(레버쿠젠)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좌우 날개로 배치됐다. 이란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최 감독의 의지가 엿보이는 전술이었다.

최 감독의 바람대로 태극전사들은 전반 초

반부터 중원을 장악하기 위한 강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기선 잡기에 애를 썼다.

전반 초반 한국의 공격 패턴은 최전방의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의 머리를 겨냥한 롱 패스와 중앙 미드필더 이명주(포항)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짧은 패스를 번갈아 가동하며 이란의 수비진을 흔들었다.

이란의 잡그기에 좀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전반 20분 이동국이 골 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떨어뜨린 볼을 손흥민이 쇄도하며 오른발 슈팅을 한 게 바운드가 되며 크로스 바를 살짝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명주가 단독 드리블,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을 연출했지만 몸싸움에서 밀려 슈팅을 시도하지 못해 결국 득점없이 전반을 마쳤다.

선수 교체없이 후반에 나선 한국은 후반 15분 한 차례 수비 실수로 어이없이 결승골을 내줬다.

왼쪽 풀백 김영권이 왼쪽 후방에서 구차네자드를 등지고 볼을 처리하려다 빼앗기고 말았다. 볼을 낚아챈 구차네자드는 골대로 질주,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강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쏘았다.

수세에 몰린 한국은 후반 20분 지동원을 빼고 이근호(상주)를, 후반 28분에는 손흥민 대신 김보경(카디프시티)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수비에 집중된 이란은 한국의 공세를 '침대축구'로 대응하며 시간을 끌었다. 마음이 급해진 한국은 후반 30분 페널티지역 왼쪽 구석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김영권과 장현수(FC도쿄)가 시도한 두 차례 슈팅이 모두 골키퍼 선방에 막혀 끝내 동점골 사냥에 실패했다.

결국 0-1로 패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골 득실로 앞서 조 2위로 월드컵 본선진출을 확정했지만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패한 선수들의 얼굴에는 아쉬움만 짙게 드리웠다.

'이른 장마' KIA 상승세 꺾일라



우천취소에 주말 휴식까지 겹쳐

불붙은 타선 감각 식을라 우려

이른 장마가 KIA의 순위 싸움에 호재가 될까? 악재가 될까?

18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예전던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7차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호랑이 군단'의 8연승 도전도 장맛비에 하루 미뤄졌다. 상승세의 KIA에게는 아쉬운 비다.

KIA는 주말 휴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한화와의 주중 경기에서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비로 한 경기가 사라졌다. 반대로 주말에 장맛비가 내린다면 다른 팀들도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상대적인 '휴식기 효과'가 반감된다.

불붙었던 타선이 비에 식지 않을까 하는 우

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원섭과 김상훈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김주찬에 이어 신종길까지 복귀하면서 타선은 거의 100%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KIA는 지난 7연승 기간 11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타선의 완벽 부활을 알렸다.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톱타자 이응규, 클린업 트리오와 테이블 세터 역할을 겸하고 있는 3번 타자 김주찬 그리고 지난 주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올린 'NLCK포' 나지완·최희섭·김주형·이범호 등이 타선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일정으로 모처럼 끌어올린 타격감이 떨어질 수 있다.

19·20일 남은 주중 2연전이 정상적으로 진

행되더라도 타자들은 주말 3연전 휴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12경기를 치른 뒤 다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휴식 일정을 맞는다.

두산 원정 3연전 그리고 한화와의 홈 2연전 이후에는 7월 18일부터 올스타 브레이크가 시작된다. 22일 월요일까지 5일간의 휴식이다.

두 번의 휴식기 일정과 올스타 브레이크가 연달아 찾아오면서 19일부터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KIA에게 남은 경기는 19.

35 일간 19경기만 치르는 일정인데다 장마로 인한 우천 취소까지 감안한다면 하루 걸러 하루 야구를 하는 셈이다. 경기 감각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장맛비와 휴식기가 이어진다면 1주일 내내 하늘만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마운드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비다.

지난 14일에 내린 비는 불펜에 전금 같은 휴식을 준 단비였지만 앞으로의 여유로운 일정

을 감안하면 장맛비는 경기 감각을 식게 하는 찬비다.

특히 '휴식+비' 패턴이 계속되면 선발 로테이션 운영이 KIA의 큰 고민이 될 수 있다.

KIA는 지난 14일 SK와의 경기 우천으로 취소된 뒤 선발 로테이션을 하루 미뤘다. 하루를 기다려 15일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타선의 화끈한 지원 속에 시즌 8승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1회부터 볼넷 두 개를 허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다.

양현종은 "14일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다 보니 등판이 하루 연기 되면서 마운드에서 감이 떨어졌다.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중간 중간의 휴식기까지 고려한다면 선발과 계투진의 보직이 뒤섞인 마운드 운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휴식기와 맞물린 이른 장마가 KIA 순위 싸움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8회연속 진출 주역들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